



화단 및 절화용 용담 재배기술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Cut Flower of *Gentiana scabra* var. *buergerii* Native t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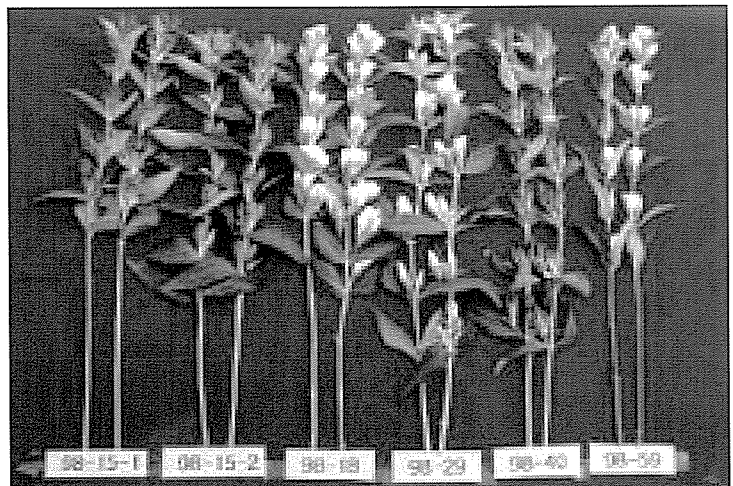
가을이 시작되면서 산행 길에 슬슬 만날 수 있는 꽃이다. 꽃이 청색의 종 모양처럼 생긴 것으로 꽃이 꽤 커서 초보자들도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용담은 뿌리가 땅속에서 남아 겨울을 나는 여러해살이 꽃이다. 같은 용담과에 속하면서 꽃 모양이 비슷한 종으로 키가 더 큰 큰 용담, 습지를 좋아하는 칼잎용담, 크기가 아주 작은 구슬봉이류나 비로용담 등 우리나라에도 12종류나 살고 있다. 가을에 피는 꽃이 아름다워 암석정원 같은 곳에 화단용으로 쓰이며, 꽃이 좋은데다 꽃대가 곧게 나와 꽃꽂이용으로도 흔히 쓰인다. 뿌리는 초롱담이라 하여 한약재로 쓰인다. 외국에서 분화용 품종이 육성되어 나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려지농업연구소에서 교배육종을 통해 꽃색이 다양하고 키도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가지 계통을 선별하고 있어 곧 신품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1. 생리생태 특성

용담은 저온성작물로 내한성이 강하며 5°C에서 자라기 시작하며



송 정 섭
 농업연구원, 이학박사
 (031-290-6159,
 songjs@rda.go.kr,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 절화용 용담

생육적온은 15℃정도이다. 30℃ 이상의 고온에서는 잎 끝이 타고 자라는 것이 눈에 띄게 부진해진다. 종자의 발아는 15℃에서도 되지만 적온은 20℃ 전후이다. 꽃봉오리가 만들어져 색이 들기 전에 고온장해를 받기 쉽다. 자생지가 높은 산의 계곡이나 습지이고 지대가 낮은 곳이라 비와 습기에 강하고 노지에 길러도 꽃과 잎이 오그라들지 않는다.



▲ 용담 분화

2. 번식하기

가. 종자번식

용담 종자는 1ml당 7,000립 정도나 되는 미세 종자이다. 파종은 봄, 가을 언제든 좋으며 고냉지에서는 봄에 하는 것이 좋다. 종자는 성숙후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면을 깨기 위해 0℃에 30~45일 또는 지베렐린 50ppm에 3일간 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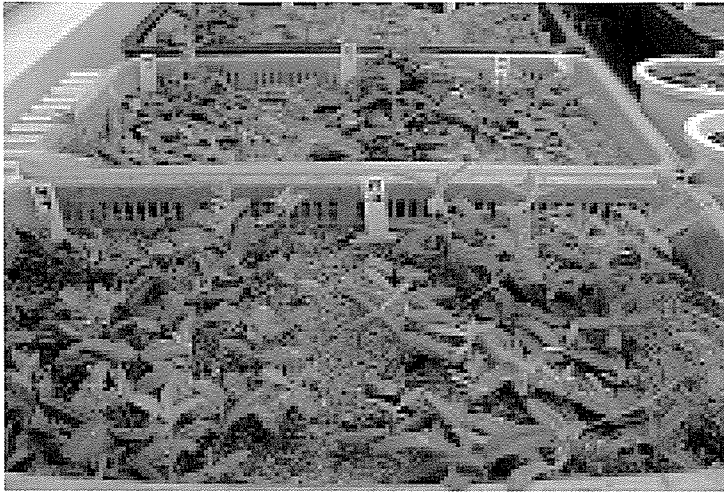
가 그늘에서 말린 뒤 뿌린다. 균일묘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플러그관에 뿌리고 육묘한다. 발아후 특히 물관리가 중요하다. 한번만 마르면 모잘록병도 생기고 입모율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월 상·중순에 뿌리면 3-4개월후 본엽 6~7매 정도가 되는데 이때부터 화단이나 밭에 아주심기 할 수 있다.

나. 삼목 및 분주

삼목은 5월 상중순 초장이 20cm 정도 될 때 윗부분 7~8cm를 잘라 잎을 3~4개 남기고 발근제(IBA 50ppm, 루톤)를 묻혀 1시간 정도 그늘에서 둔 다음 삼목상에 2~4cm 간격으로 꽂고 50%정도 차광해 준다. 삼목용토는 모래와 피트모스 또는 펠라이트를 1:1 비율로 한다. 삼식후 4~5일 간격으로 물을 주면 40일이면 뿌리를 내린다. 또한 봄이나 가을에 새싹이



▲ 용담 플러그 육묘



▲ 용담 모래 삼목

들 무렵 보면 옆에 새로 나온 어린 줄기들 중에서 충실한 눈을 3개이상 가진 것을 1포기로 하여 벤레이트 500배액에 30분간 소독한 뒤 심는다.

다. 포장관리

용담은 고온과 강한 햇빛을 싫어한다. 대량으로 재배할 때는 별도의 차광망을 쳐주는 것이 좋다. 특히 꽃꽂이용 절화생산을 목적으로 재배한다면 30% 차광망을 이용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게 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화단이나 공원에 심을 때도 반그늘정도 진 곳에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시비

용담은 다비성식물로서 정식 전·후 시비관리가 필요하다. 밀거름으로 10a당 완숙퇴비 3,000~5,000kg, 복합비료(18-18-18)를 60~80kg을 뿌려준다. 포기과 포기사이에 봄, 여름에 각각 질소, 인산, 가리를 혼합하여 2~3kg 정도를 추비로 시용하고 생육 중에 4중 복합비료를 1,000~1,500배로 희석하여 월 2~3

회 정도 옆면에 뿌려준다. 화분에 기를 때는 구비나 유기질비료를 분위에 올려 둔다.

마. 병해충 퇴치하기

화단에 관상용으로 심는 경우 약제 살포는 어려우나 절화생산을 위해 대량으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가 필요하다. 어렸을 때는 잘록병, 어느 정도 자라면 잎마름병이나 균핵병 같은 것들이 생긴다. 잘록병은 육묘기 때 물 관리 소홀로 오

는 경우가 많으므로 깨끗한 흙을 사용하고 파종상자가 마르지 않도록 물관리를 잘해야 한다. 잎마름병은 생기기 전에 예방효과가 크므로 발병초기에 타로닐, 캡타올, 옥시동 등을 1주일 간격으로 4~5회 연속 살포한다. 균핵병은 토양소독과 비닐멀칭재배 및 비가림 재배가 예방에 효과가 크다. 잿빛곰팡이병은 저온다습한 환경에서 환기가 불량할 때 많이 발생한다. 프로파, 디크론, 빈졸 등의 약제로 방제한다. 충해로는 응애와 진딧물류의 해가 있어 주기적으로 응애약(살비제)을 뿌리고 진딧물류는 초기에 진딧물 전용 살충제를 뿌린다. 